

반도체 등 육성에 3.7조... '해야 할 일은 하는 예산' 편성

2023 쟁점예산

10 윤석열표 '역동적 경제' <골>

기재부, 내년 예산안 639조 편성
전년비 5.2% ↑, 2차추경비 6% ↓
R&D고도화 6조, 탄소중립에 8.9조
반도체 인력양성 규모 2.6만명으로

"계획을 잘 세워야 성적표가 잘 나온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 목표 중 하나인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를 위한 정책이 실효성 있게 집행돼 혁신의 마중물이 될 수 있을지는 국회가 확정하는 '계획표' 즉, 예산이 큰 몫을 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이 문재인 정부의 확장 재정 기초를 건정 재정으로 전환하고 '해야 할 일은 하는 예산'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2022년도 본예산 대비 5.2%가 늘고 2차 추가경정예산 대비 6.0%가 줄은 639조원(총지출 기준)이 편성됐다. 정부안대로라면 전년 본예산과 비교하여 GDP(국내총생산) 대비 관리재정수지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비율은 4.4%에서 2.6%로, 국가채무비율은 50%에서 49.8%로 소폭 개선될 전망이다.

특히 정부는 민간이 주도하는 역동적 경제를 위해 ▲반도체 등 전략산업 육성에 3조7000억원 ▲연구개발(R&D) 고도화에 6조원 ▲디지털 혁신·탄소중립 대응에 8조9000억원 ▲기업·산업 역동성 제고에 5조6000억원 ▲중소벤처·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에 4조6000억원이 필요하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반도체' 산업의

초격차 확보와 인력 양성을 위해 약 1조원을 편성했다. 그러나 비메모리와 메모리 반도체의 성적이 극단적으로 나뉘는 한국의 상황을 극복하고 초격차를 이뤄 내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또한 정부는 2023년도 반도체 인력양성 규모를 1만5000명에서 2만6000명으로 확대한다고 했는데, 정작 업계에서 필요한 '현장 맞춤형' 전문 인력을 제 때 공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국회예산정책처도 "산업통상자원부의 반도체 분야 인력양성 사업은 재직

자 및 취업준비자 대상 단기 인력양성 사업이 다수 사업에서 동시에 추진되고 있어 사업 간 교육내용 및 대상의 차별성 부족이 우려되므로 유사 사업을 통합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8월 약 반도체 산업에 520억달러의 대규모 보조금 지원을 골자로 하는 미국 반도체 산업 지원법에 서명하는 등 세계적으로 '반도체 자국 중심주의'가 강화되는 상황인 반면, 대한민국 국회는 반도체 투자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고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조성 규제를 완화한 일명 'K-칩스'법이 발의됐는 데도 국회 해당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또한 핵심전략기술(반도체, 5G·6G·양자, 미래모빌리티, 우주, 첨단바이오, 이차전지, 인공지능) 지원에 4조5000억원을 책정한 반면, 주목할 만한 분야(미래에너지, 난치병 치료 기술, 로봇, 가상현실, 증강현실, 하이퍼루프, 도심항공모빌리티) 기술 지원엔 4000억원을 편성했다.

지금 당장 혹은 단기간에 상용화할 수 있는 기술 개발에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다음 세대가 먹고 살 장기적인 미래 먹거리 발굴에도 예산이 흘러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더군다나 예산안법정시한(2일)을 코앞에 두고도 여야는 느긋한 모습이다. 예산안 심의 과정 중 과행을 겪는 상임위도 곳곳에서 나왔으며, 정부안을 관철하겠다는 국민의힘과 민생 예산을 되살리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격돌은 여전히 팽팽하다. 심지어 국민의힘은 준예산, 민주당은 단독 삭감한 수정안 채택의 가능성을 내비치며 '조유의 사태'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조이섭 국회예산정책처장은 2023년도 예산 총괄 분석 발간사에서 "내년에는 민간소비 위축 등으로 성장세가 둔화되고 고용지표도 악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국가재정의 효과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재정을 운용할 필요가 있다"며 "국회는 연내 집행가능성이 낮거나 사업효과가 불투명한 사업 등에 대한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민간투자를 활성화시키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며 고용 창출 등에 기여할 수 있는 부문으로 예산을 재배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수장 줄줄이 임기만료... 지방금융지주, 세대교체 바람 분다

JB금융지주 전북은행장 후보에 백종일 프놈펜상업은행장 내정
광주은행장 단독후보에 고병일

BNK금융지주 회장선임 돌입
내부 후보군 9명에 외부 추천도

DGB금융 대구은행장 임기 만료
후보군 7명 중 현 행장 연임 가능성

지방금융지주의 세대교체가 본격화하고 있다. 올 연말부터 지방금융 최고경영자(CEO)들이 대거 임기만료를 앞두고 있어 새 얼굴이 속속 등장하는 분위기다.

JB금융지주는 최근 핵심계열사인 전북·광주은행의 수장을 한 번에 교체했다. 세대교체의 신호탄이다. BNK금융지주는 차기 회장 선출을 위한 임원 후보추천위원회가 가동됐다. 부산·경남은행장의 임기도 곧 만료돼 모든 CEO가 바뀔 전망이다. DGB금융지주도 차기 행장 선임절차에 돌입했다.



JB금융지주 본사.



BNK금융 본사.



DGB금융 본사.

◆ JB금융, 전북·광주은행 교체

1일 금융권에 따르면 JB금융지주는 최근 자회사 CEO 후보추천위원회를 열고 새 전북은행장 후보로 백종일 캄보디아 프놈펜상업은행장을 내정했다. 광주은행장으로는 고병일 현 광주은행 부행장을 단독후보로 올렸다.

전북은행의 수장으로 내정된 백종일 행장은 1962년생, 광주은행을 이끌어갈

고병일 부행장은 1966년생으로 사실상 세대교체가 시작된 셈이다.

전북은행장과 광주은행장으로 내정된 백 행장과 고 부행장은 내부 인사지만, 방향성은 완전히 다르다. 백 행장은 외부출신으로 뒤늦게 전북은행에 합류했다는 점에서 변화에 중점을 뒀다. 반면,

고 부행장은 광주은행에 입행해 32년간 근속해 안정에 초점을 뒀다는 평가다.

◆ BNK금융, 차기 회장 선임 돌입

BNK금융지주는 차기 회장 선임에 돌입했다. 여기에 안감찬 부산은행장과 최홍영 경남은행장의 임기도 내년 3월 만료된다. 차기 회장이 결정되면 자리를 비워야 한다.

최근 BNK금융지주는 임추위를 열고 CEO 경영승계 절차 추진 방안을 확정했다. 임추위는 BNK금융 계열사 대표인 내부 후보군 9명 이외에 외부 자문 기관 2개 업체에서 추천을 받은 외부 후보군을 추가하기로 했다.

금융권에서는 외부 출신의 회장 선임에 무게를 싣고 있다. 외부 출신이 그룹 수장이 되면 두 행장 모두 자리에서 내려와야 할 전망이다. 새 지주 회장이 임명될 경우 인적 쇄신을 위해 계열사 수장부터 교체했기 때문이다.

BNK금융 내부에선 외부 인물에 부정적인 분위기다.

◆ 대구은행장 후보 7명 확정

DGB금융그룹도 차기 행장 선임 과정에 돌입했다. 임성훈 DGB대구은행장이

이달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어서다. 임행장은 2020년 9월 선임된 후 오는 12월 31일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DGB대구은행의 차기 은행장 후보는 7명으로 추려졌다. 후보 중에는 현직인 임성훈 행장과 DGB금융지주사 전무급 2명, 대구은행 부행장보급 4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룹임추위는 이들 중 1명을 최종 후보자로 결정해 대구은행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추천한다.

최종후보자가 대구은행 임원후보추천위의 자격 검증을 통과하면 연내 예정된 임시 주주총회에서 차기 은행장으로 선임된다.

업계에선 임 행장의 연임에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임 행장이 대구은행을 안정적으로 이끌었다는 이유에서다. 올 3분기 대구은행은 전년 동기 대비 15.3% 성장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임 행장이 연임에 성공하면 자체 규정에 따라 임기는 1년 추가된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지난달 민간부문 고용 12.7만명 증가 '노동시장 안정'

>> 1면 '파월 발언에 韓 금리'서 계속

노동시장도 안정되고 있다. ADP 민간 고용 보고서에 따르면 11월 민간부문 고용은 12만7000명 증가해 지난 2021년 1월 이후 최저수준을 기록했다. 10월 소비자물가지수(CPI)도 7.7% 상승해 시장 전망치였던 7.8%를 밑돌았다.

파월 의장은 "물가상승률이 한 번 둔

화했다고 해서 영구적인 하락으로 보면 안된다"며 "내년에는 지난 9월 예상했던 것보다 최종금리가 더 높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한국의 최종 기준금리가 3.5%에서 멈출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날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날 증가 대비 19.8원 내린 1299원이다.

높은 환율은 물가상승을 부추길 수

있지만 안정세로 돌아서면서 금리인상에 대한 부담도 덜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로이터통신과 인터뷰에서 "원달러 환율이 안정되면서 통화정책을 좀더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게 됐다"며 "현재로서는 불확실성이 높지만 상황이 예상대로 흘러간다면 최종금리는 3.5% 전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SK라이프사이언스 사장에 이동훈 선임

>> 1면 'SK그룹 조직개편·인사'서 계속

SK바이오팜은 이동훈(SK㈜)바이오 투자센터장을 SK바이오팜 및 미국 자회사인 SK 라이프사이언스의 신임 사장으로 선임했다.

SK E&S는 추형욱 사장을 단독대표 체제로 전환했다. 투자전문회사 SK(㈜)는 이성형 CFO(최고재무책임자)를 사

장으로 끌어올리며 글로벌 경영 불확실성에 대응한다.

SK관계자는 "2023년은 '경영시스템 2.0'이 본격화되는 원년으로 재무성과를 비롯해 경제적 가치, 사회적 가치, 유무형 자산 등 다양한 요소로 구성된 기업가치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이번 인사를 단행했다"고 전했다.

/최빛나 기자 vitna@